

재일 코리안 축제와 마당극의 의의*

-生野民族文化祭를 중심으로-

박 수 경**

(e-mail: parksk3000@pusan.ac.kr)

目 次

1. 들어가며
 2. 장소성과 축제, 마당극
 - 2.1 축제의 형성과정과 내용
 - 2.2 민족극으로서의 마당극
 3. 마당극의 카니발성
 4. 맺음말
-

1. 들어가며

2008년 말 현재 일본 총인구 중 외국인등록자수는 2,217,426명으로 1.74%의 비율을 점하며, 그 중 중국이 29.6%로 최상위이며, 한국, 조선적이 26.6%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자의 국적(출신지)수는 190개로 바야흐로 일본은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들어섰다 할 수 있으며, 재일 코리안은 일본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는 가장 큰 외국인집단이라 할 수 있다.¹⁾ 이들의 최대 집주지역은 오사카시 이쿠노쿠(大阪市生野区)로 그 중에서 최대의 집주지역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1) 2009년 7월 발표 일본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에 의한 자료로,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press_090710-1_090710-1.html(검색일: 2010. 4. 23)

이쿠노쿠(生野区) 안의 미유키거리상점가(御幸通商店街)로, 일명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곳으로, 코리아타운은 제일 코리안을 표상하는 상징적 공간인 것이다. 그러면, 코리아타운은 어떠한 배경으로 형성되어,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되었을까.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코리아타운 형성 계기는 1982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일본JC(Junior Chamber)의 어느 한 개인, A씨의 발안에서 시작하여 1993년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는 물론 일본 JC뿐 아니라, 1982년 A씨가 KOJC(Korea Osaka Junior Chamber)의 이사와 접촉하고, 1984년 일본JC와 KOJC가 협력체제를 구축, 합의서를 교환하며, 코리아타운이 구상된다. 1986년 코리아타운 예정지를 미유키거리상점가(御幸通商店街)로 결정하고, 고베난킹거리(神戸南京街)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부모임을 갖는 등, 각계, 각층에 코리아타운 구상계획에 도움을 요청하며, 협조해 줄 것을 외쳤던 하나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다.²⁾ 그러나, JC가 몇 년도에 어떤 기관과 접촉을 했고, 어떤 기관을 조직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할 뿐으로, 당시의 제일 코리안 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배경들은 간과되고 있다. 본고는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1993년 비로소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된 문화적 배경 중의 하나로 제일 코리안 축제와 마당극이 어떤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가정 하에, 제일 코리안 축제 중의 하나인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 1983-2002)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고가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의 획득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 동안 제일 코리안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의 획득으로 어떤 한 장소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이제는 보이는 존재, 보이고 싶은 존재로 거듭났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본 연구는 타자로서의 로컬의 로컬리티가 가지는 의미찾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일 코리안의 집주공간인 이쿠노쿠(生野区)는 타자로서의 로컬에 해당되는데, 이곳의 로컬리티는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졌을까. 중심-주변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은 바깥과의 경계지로서, 중심에서 소외된 장소, 억압과 굴종, 종속과 착취의 부정적 장소로 머물지 않고, 외부와 가장 먼저 접하는 변화의 시발점적 장소로 볼 수 있다.³⁾ 타자로서의 로컬·이쿠노쿠(生野区)는 중심-주변에 있어서 어느 쪽일까. 본고는 주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변으로서의 긍정적 기능, 즉, 외부와 가장 먼저 접하는 변화의 시발점적 장소로 보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다음의 연구결과이다. 즉, 트랜스내셔널한 차원에서 일본인의 이동은 국내이동이 대부분이나, 제일 코리안은 국제이동

2) 上田智也(1998) 「済州道から「定住コリアン」へー「コリアタウン」とともに創造する/されるエスニシティ」『地理』43-5 p.75

3) 문성원(2007) 「주변의 의미와 잠재성」 『시대와 철학』 18-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p.45

의 전출입(여행과 달리, 이사 등으로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거주지 변경을 알림)의 1/4을 차지하며, 국제이동 목표지는 물론 한국이다.⁴⁾ 한국에서 이쿠노쿠로 전입하는 경우는 코리안 총 전입의 28.0%이며, 이쿠노쿠에서 한국으로의 전출은 코리안 총 전출의 24.7%이다. 한국과 이쿠노쿠 사이에는 인간의 이동과 함께, 광의의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쿠노쿠에 한해서 이야기 하자면, 이쿠노쿠는 흐름의 공간으로 외부와 가장 먼저 접하는 변화의 시발점적 장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듭 언급하면, 이쿠노쿠는 흐름의 공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쿠노쿠 안의 코리아타운은 재일 코리안 존재의 상징적 공간인 동시에, 흐름이 꽃피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 하에 가정하길, 이쿠노쿠의 이러한 로컬리티의 형성 배경 중 하나로 재일 코리안 축제와 마당극이 코리아타운 형성의 한 요인으로 작동하였으리라 가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특히 재일 코리안 축제와 마당극 중에서 특히 시발점인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 1983-2002)를 중심으로 논을 펼치기로 한다. 이쿠노민족문화제와의 관계여부에 상관없이 재일 코리안 축제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로 조금씩 재일 코리안 축제에 대하여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며,⁵⁾ 한국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⁶⁾ 특히, 재일 코리안 축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마당극에 대한 선행논문은 찾을 수가 없었다. 본고는 재일 코리안 축제와 마당극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Avila-Tapias,L. (1995) 「在日外国人と日本人の人口移動パターンの比較研究-大阪市生野区を事例として-」『人文地理』47-2, 李禧淑(2002)『近現代におけるコリアンの移住と新たな社会空間づくり』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論文 p.83 재인용.

5) 飯田剛史(2002) 「第12章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民族」-民族文化運動の自己組織化-」『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世界思想社, 飯田剛史(2004) 「在日コリアンの「祭り」形成と公共化」『人文知の新たな総合に向けて-21世紀COEプログラム: グローバル化時代の多元的人文の拠点形成-第二回 報告書Ⅲ[哲学篇2]』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江口信清(1994) 井上忠司他編「民族の祭り」에스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高揚-朝鮮・韓国人による生野民族文化祭の事例-」『文化の地平線-人類学からの挑戦-』 世界思想社, 磯田三津子 (2010) 「ディアスポラ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の音楽と多文化共生-京都東九条マダンの演目「和太鼓&サムルノリ」にみるハイブリディティー」『東洋音楽学会会報』78 東洋音楽学会, 吉田正純 (1955) 「多文化共生と「ローカル・レレッジ」~京都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地域活動を事例に」『日本の社会教育』東洋館出版社, 片岡千代子(2007) 「在日コリアンの祭りにおける多文化共生空間の創成-京都「東九条マダン」の楽器隊を事例に」『教育研究推進年報』1 名古屋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藤井真之助 (2006 (未刊)) 「民族祭り・マダンの系譜-見る者と見られる者の関係性、在日朝鮮人の出会いの場から多民族・多文化共生実現へむけて-」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発表会、大阪、7月, 李禧淑(2002)『近現代におけるコリアンの移住と新たな社会空間づくり』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論文

6) 발견되는 논문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한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김현선(2007)「재일 코리안의 축제와 민족 정체성」『일본연구논총』제26호

2. 장소성과 축제, 마당극

골드만의 이론은 발생적 구조주의라고 불리며, 모든 인간행위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응」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 때 행동 주체와 그것의 객체, 즉 환경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자신과 세계 사이의 더 좋은 상태의 평형을 얻기 위하여 주위 세계를 변형시키므로, 인간의 행위는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의 대상이 된다.⁷⁾ 여기서, 골드만이 말하는 주체란 「어떤 행위와 결과가 이해되어질 수 있게 되는 개인들의 집단」⁸⁾으로 집단적 주체를 상정한다. 본고는 골드만이 말하는 환경을 장소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실 사건과 행위는 장소의 맥락에서만 의미 있으며, 사건과 행위가 장소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만, 장소의 성격에 의해 사건과 행위가 윤색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⁹⁾ 인용 중의 장소의 맥락이라든지 장소의 성격을 본고는 장소성이라고 보는데, 골드만이 말하는 환경 중의 한 요소로 장소성이 포함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장소성은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의 「상동(相同)구조」를 빌어 올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마당극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 마당극이, 마당극이 발생할 당시의 한국사회와 상동(相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마당극을 배태할 어떤 사회구조를 가졌을 것이라고 논하며,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주체는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낸다고 골드만¹⁰⁾을 빌어 기술한다.¹¹⁾ 본고는 앞서 환경 중의 한 요소로 장소성이 포함된다는 전제를 세웠는데, 이 전제가 타당하다면, 마당극이 장소성과 상동구조를 이룬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본고는 이하에서 상동구조를 가지는 장소성을 큰 축으로 재일 코리안의 축제와 마당극의 발생 배경을 논하기로 한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1983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 이쿠노민족문화제이다. 현재, 재일 코리안 축제는 일본 전역에서 약 5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¹²⁾, 그 시초가 되는 것이 이쿠노민족문화제이다. 이쿠노민족문화제를 기획한 것은 당시 이쿠노쿠에 있는 聖和社會館 관장이던 金徳煥에 의해

7) 민윤경(2004) 「마당극의 세계관과 상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논문 p.12

8) 골드만, L.(1984b) 박영신 외 역 『문학사회학 방법론』 현상과 인식 p.63

9) 랐프, 에드워드(2008)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p.102-103

10) 골드만, L.(1984b) 앞의 책 p.64

11) 민윤경(2004) 앞의 책 p.13

12) 藤井真之助 (2006 (未刊)) 「民族祭り・マダンの系譜-見る者と見られる者の関係性、在日朝鮮人の出会いの場から多民族・多文化共生実現へむけて-」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発表会、大阪、7月.

서이다. 그는 1997년에, 1983년 10월 15일 오후3시 전야제의 퍼레이드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자신은 이쿠노쿠에서 성장,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가 재일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퍼레이드를 행하는 그의 모습에 그 자신이 감동함은 물론이요, 바라보고 있던 일본인만이 아니라 재일 코리안도, 그들이 재일 코리안임을 농악과 오색의 복장으로 분명하게 드러냄을 보고 놀랐다고 기술하고 있다.¹³⁾ 그 이전까지는 스스로 재일 코리안임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서로의 묵인 속에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존재였던 것이다.¹⁴⁾ 이러한 일은 재일 코리안에게서 비밀비재한 일로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축제를 계기로 재일 코리안은 보이는 존재로 변한 것이다. 그러면, 이쿠노쿠에서 왜 최초의 재일 코리안 축제가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쿠노쿠는 옛날 지명으로 이카이노(猪飼野)¹⁵⁾의 한 부분으로, 재일 코리안이 제일 많이 산다는 오사카 중에서도 재일 코리안¹⁶⁾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오사카시에는 110,092명(1991년 3월 31일 현재)의 재일 코리안이 살며, 그들 중 38,404(34.9%)명이 이쿠노쿠에 집주하고 있다.¹⁷⁾ 1920년대에 이쿠노쿠의 히라노강(平野川)의 개수공사에 조선인이 종사하였는데, 공사가 끝난 후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¹⁸⁾ 그 후, 1923년 제주도-오사카 간의 직항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제주도 출신자가 직공으로서 정착한 것이 시작이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주의 형태에 주목하면, 제주도로부터의 도항자들은 가족형태를 취한 연쇄이주(chain migration)로, 오사카에 재일 코리안이 크게 증대하는 하나의 이유로 꼽는다.¹⁹⁾ 1930년대부터 코리안은 오사카의 동부인 猪飼野(현재의 生野区(이쿠노쿠)와 東成区(히가시나리쿠))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곳은 그들의 직장터이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는 200만명이 넘는 코리안 중 2/3가 귀환하고, 나머지는 일본에 정주하게

13) 金徳煥(1997) 「大阪生野からのメッセージ」 『グルパン21』 pp.2-23

14) 재일 코리안 사회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한국인, 조선인이라는 것은, 그 때까지 많은 재일코리안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 숨겨야 하는 일로 여겨져, 일본명을 통명으로 하고, 국적 내지 민족성을 숨기면서, 경제생활 향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고투하여 왔다.」 飯田剛史 (2002) 「第12章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民族」-民族文化運動の自己組織化-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 世界思想社 p.321

15) 猪飼野라는 지명은 조선인부락이라는 마이네스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일본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住居表示制度施行 (1973) 후 없어진 지명이다.

16) 재일 코리안의 출신지는 경상남도(가장 많으나, 오사카에 한해서 보면, 전라남도(제주도 포함)가 가장 많다고 한다. 李禧淑(2002) 『近現代におけるコリアンの移住と新たな社会空間づくり』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論文 p.26

17) 江口新清(1994) 井上忠司他編 「民族の祭り」と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高揚-朝鮮韓国人による生野民族文化祭の事例- 『文化の地平線-人類学からの挑戦-』 世界思想社 p.255

18) 江口新清 위의 논문 p.255

19) 李禧淑 위의 논문 p.96

된다. 해방 후, 코리아로 귀국할 수 없었던 코리안은 해방기의 혼란 중, 자조(自助)조직을 결성한다. 좌파에 의해 재일 조선인연맹(조련(총련의 전신))이 결성되고, 우파에 의해 재일 조선거류민단(민단)이 결성되는데, 양 쪽 모두 강한 애국심과 반일본주의를 취하였다. 그리고, 남북분단과 6.25전쟁은 이 양 커뮤니티(조련과 민단)의 분열로 바로 연결되었다.²⁰⁾

이러한 상황은 재일 코리안이 집주하는 이쿠노쿠에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진행과정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이쿠노민족문화제는 처음부터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제1회 이쿠노민족문화제 개최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는 누군가에 의해 먹칠되고²¹⁾, 실행준비위원회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주최가 어느 쪽이냐는 것이었다. 즉, 주체가 남쪽이나 북쪽이냐를 분명히 할 것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운동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²²⁾ 한편, 민족문화는 어떤 식으로 전해지고 있었는가를 보면, 2010년 1월 26일 제1회 이쿠노민족문화제부터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J씨를 聖和社會館에서 면담한 결과, 가족 안에서 제사 정도의 민족문화가 남아있을 뿐으로 가정에서의 의사소통도 일본어를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쿠노민족문화제의 기획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³⁾ 첫 번째로는 1세에서 2, 3세로 세대교차가 이루어지면서 민족적 자각의식이 흐려져 갔다는 점이다. 가정 내에서조차 차별과 억압에 의해 민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남북분단 상황이 재일 코리안 사회에서의 정치적 주장과 대립으로 이어져, 차별, 억압, 편견 속에 있는 자신들 스스로가 문화와 교육의 공동체와 연대의식을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기로 이쿠노민족문화제는 위에서 언급한 1983년 10월 15일 오후3시를 기점으로 축제를 펼친다. 그러면, 이쿠노민족문화제의 형성 배경은 무엇일까. 1992년 金德煥과의 면담이 말하는 축제 형성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²⁴⁾ 첫 째로 이 지역에 재일 코리안이 집주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출신이 많았다. 그 중, 제주도 출신 여성은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쿠노쿠에서도 발현되었다고 본다. 둘 째로 197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인권의식이 고양되는데 이쿠노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셋 째로 聖和社會館의 존재이다. 聖和社會館은 일본 기독교단 聖和교회²⁵⁾에 병설된 사회복지법

20) 李禧淑 위의 논문 p.96

21) 太田順一(1987) 『女たちの猪飼野』 晶文社

22) 金德煥(1985) 「民族のマダン(広場)-生野民族文化祭-」 『月刊社会教育』 p.31, 金경숙(1989) 「재일동포, 축제로 민족을 찾는다」 『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p.70

23) 金德煥 위의 논문 pp.29-30

24) 江口新清(1994) 井上忠司他編 「民族の祭り」と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高揚-朝鮮韓国人による生野民族文化祭の事例- 『文化の地平線-人類学からの挑戦-』 世界思想社

인으로,²⁶⁾ 「어머니학교」도 1977년도부터 聖和社會館이 행한 지역활동 중의 하나이다.

2.1 축제의 형성과정과 내용

제1회 이쿠노민족문화제는 우천중에도 3000명의 동포가 참가하였으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하며,²⁷⁾ 제1회 문화제가 진행된 곳은 聖和社會館에서 300미터 가량 떨어진 미유키모리소학교(御幸森小学校)이다. ²⁸⁾그러나, 이 장소를 빌리는 데에도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²⁹⁾ 미유키모리소학교는 당시 학생의 75%가 재일 코리안이었고, 그 주변은 재일 코리안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학생 수의 75%가 재일 코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PTA 위원으로 재일 코리안이 선출되는 일은 결코 없었다. 제1회 문화제가 이곳에서 거행된 후는, 이곳은 일본인의 일본학교로, 조선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빗발칠 정도였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제는 이후 다른 장소를 찾아 전전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제1회 문화제 당시로 돌아가면, 실행위원회는 문화제 개최 장소를 빌리기 위하여, 시의 공원사무소로 갔을 때, 담당자는 공원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장소라고 전하였다 한다.³⁰⁾ 재일 코리안이 지역주민이라는 감각은 그들의 의식 속에 전무하였으며, 재일 코리안은 「透明人間」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화제는 1983년 10월 15일(토) 이카이노(猪飼野)지역 (현재의 生野区和 東成区)을 농악대 퍼레이드로 전야제를 시작하고, 다음날 미유키모리소학교를 <그림1>³¹⁾과 같이 문화제개최장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표1>³²⁾은 1983년 10월 15일과 16일 양일의 행사프로그램이다.

25) 재일 코리안 사회에서의 종교는 다음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 「재일사회에서는 단일한 주요한 종교는 없이 유교(선조제례), 불교, 무교, 기독교 등이 병립 내지 복합되어 있다. 대한기독교회총회와 인권운동, 민족문화운동과의 관련에는 주의할만한 점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사회변동에 대하여 수동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는 듯하다.」 飯田剛史 (2002) 앞의 책 p.307

26) 飯田剛史 (2002) 위의 책 p.311

27) 김경숙 앞의 글 p.70

28)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生野民族文化祭 1983年度 第1回文集』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 p.45, pp.48-49

29) 金德煥(1985) 앞의 논문 p.32

30) 金德煥 (1985) 위의 논문 p.32

31)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앞의 책 p.47

32)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47

<그림1>



<표1>

生野民族文化祭プログラム

10月15日 (土)	PM 4: 00~	猪飼野地域能楽隊퍼레이드 (1)
(前夜祭)		
16日 (日)	AM 9: 00~	能楽地域퍼레이드 (2)
	10: 00~	開會宣言
		能楽 (校庭)
	10: 30~	各部、學校、舞踏研究會參加者 發表會 (講堂)
	12: 00~	점심
		강강수월래 (校庭) 以下 동일
	PM 1: 00~	부채춤
	20~	노래자랑
	2: 30~	民族놀이大會
		民族衣裝자랑
	3: 00~	마당극
		「호랑이 놀이」
	4: 00~	農樂 (會場參加者一同)
		閉幕
	その他	
		民族料理店 民族物品바자회

「透明人間」은 이제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닌 것이다.³³⁾ 자신들의 놀이, 옷

33) 読売新聞(1983.9.20)은 이쿠노민족문화제 개최 한 달 전에 문화제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노래와 춤을 통하여 기쁨과 고민을 모두 서로 나누는 장을...(중략) 김관장은 제일동포는 물론, 일본인에게도 우리들의 민족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과 음식들을 내놓고, 자신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팽과리 소리와 강강수월래로 드러내고, 마당극을 통하여 그 동안 내 뱉지 못한 저항의 말들을 풀어 내놓기 시작하였다. 마당극이 어떤 식으로 어떠한 저항의 말들을 풀어내었는지에 관해서는 3장을 통하여 논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쿠노민족문화제의 참가자격은 한국조선국적에 한(限)한다고 기술되어,³⁴⁾ 문화제가 재일 코리안에게만 열린 공간으로 일본인에게는 폐쇄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면담자 J씨에 의하면, 일본인이 문화제의 스텝으로 활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인이 무대에 등장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일은 없었으나, 탈만들기와 의상만들기 등의 소품 만들기에 참여하였으며, 문화제를 카메라로 기록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일본인이 스텝의 한 사람으로서 남긴 기록인지, 관람객으로 남긴 기록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일본인의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또 오겠습니다.³⁵⁾

마당극의 관찰자로 참가하여, 「마당극을 누구에게 보일까」라는 과제를 유연히 만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민중문화운동을 일본인 속에 만들어 가고 싶다. 마당극과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연극과 관계가 있는건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문화를 만드는 운동에 참가한 것에 의의가 있었다. 일본인 S씨³⁶⁾

재일 코리안의 생활문화가 일본인의 생활문화와 거의 균질화된 현재의 상태에서 재일 코리안의 문화, 축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공통의 생활문화 가운데에서: 필자주) 「민족적」 문화창조는, 「차이」로서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문화적 균질화 속에서의 「차이」로서 「민족」 문화가, 재일코리안 자신만이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³⁷⁾

재일 코리안의 축제는 재일 코리안만의 축제가 아닌, 일본사회의 다양성, 혼종성, 타자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4) 飯田剛史 (2004) 「在日コリアンの「祭り」形成と公共化」『人文知の新たな総合に向けて-21世紀C O Eプログラム: グローバル化時代の多元的人文学の拠点形成- 第二回 報告書Ⅲ[哲学篇2]』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28

35)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 (1984) 앞의 책 p.47 (필자번역, 이하 동일)

36)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 (1984) 위의 책 p.20

37) 飯田剛史 (2004) 앞의 논문 p.35

2.2 민족극으로서의 마당극

한국에서의 마당극 형성구조를 시대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38) 1960년대 한국사회는 자유당의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4.19, 그리고, 5.16쿠데타와 6.3 한일회담에 대한 규탄, 마지막으로 미국문화에 대한 편향적 수용의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분단 하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민족의식은 억압하였으나, 반면, 4.19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문화적 「민족」 의식을 형성케 하였는데, 이는 마당극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70, 80년대는 경제발전추진을 위한 노동계급 탄압과 이에 저항하는 사회적 상황, 즉 사회운동의 확산으로 「민중」이 등장하는 시기로서 마당극은 민중문화로 자리매김된다. 마지막으로 1987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는 87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회적 담론은 민족으로 이동, 연극계에서도 마당극을 민족극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기술하면, 마당극은 여전히 주체를 민중에서 민족으로 전환하지 못하였다. 민족극으로의 전환 시도 이후로도 민중적인 소재로 마당극을 채우고 있었기에, 마당극은 민족적 형식과 민중적 내용을 취하였다 할 것이다. 39)

그러나, 한국에서는 실패하였지만, 이쿠노민족문화제(1983-2002)에서는 마당극이 민족극으로서 상연되고 있다. 형식도 민족적이며, 내용 또한 민족적이다. 문제였던 내용, 즉 내용이 민족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통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당시 그리고 현재까지 제일 코리안 사회, 총련, 민단, 더블(한국인과 일본인의 2세) 등이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일상생활 속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비근한 예로, 가족행사 중의 하나인 제사 자리에서 이념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쿠노민족문화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축제와 마당극에서 통일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다. 이쿠노민족문화제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나가 되어 기르자 민족의 문화를! 마음을」(밑줄 필자)이며, 지난 2002년에 막을 내린 제20회 이쿠노민족문화제 행사 팸플릿이 소개하는 마당극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당극 <색동놀이>의 제2마당 부분의 설명이다.

어느 색동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개의 산, 북쪽의 백두산, 남쪽의 한라산이 웬지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선의 그림자도 형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색동세계에서는 모든 제일한국, 조선인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조국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며, 모어인 조선어를 이야기 할 수

38) 민윤경 앞의 논문 pp.20-32

39) 민윤경 위의 논문 p.15, p.32

있게 되어있습니다.⁴⁰⁾

캐치프레이즈와 마당극 소개를 통해 볼 때,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며, 희망적인 내용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먼담자 J씨에 따르면⁴¹⁾, 문화제의 마감은 5시경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행사 장소를 비우고 퇴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한반도 그림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타이틀과 한글 노래가사 밑에 카타카나 표기를 첨가하고, 일본어로 그 뜻을 풀이한 팜플렛 페이지를 근거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⁴²⁾

한국에서는 성립하지 못한 민족극으로서의 마당극이 이쿠노민족문화제에서 성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념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당사자로서의 입장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을 소재로 한 마당극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다 하지 못할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과 한국은 통일될 것이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념적 갈등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책이 이 곳 이쿠노민족문화제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재일 코리안 사회는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갈등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화해와 소통의 장의 모델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3. 마당극의 카니발성

본고가 받아들이는 바흐전의 카니발은 간단히 말해서, 상하의 전복이다. ⁴³⁾ 바흐전의 카니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상을 하와 위치 교대시키고, 고상하고 낮은 것, 즉 준비되고 완성된 것을 죽음과 새로운 탄생(혁신)을 위한 물질-육체적 하부로 던져버리는 것이다.⁴⁴⁾ 또한 카니발적 상황에서는 계급적 원칙의 거부 결과로서의 거리낌

40)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2002) 『第20回 生野民族文化祭』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

41) J씨에 의하면, 이쿠노민족문화제의 마당극 내용은 해마다 바뀌었으며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제주도-일본도항기(1세들의), 2)미래를 향해 무엇을 전승하여야 하는가, 3)홍길동 등의 민화를 베이스로 일본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함. 마당극은 공동작업(5~6명)으로 추진되며, 내용을 실행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고나서, 대사를 채워넣고, 연습 시 다시 대사를 수정, 보충하였다.

42)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2002) 앞의 책

43) 바흐전, 미하일(2001) 이덕형 외 옮김 『프랑스어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p.50

없는 행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모든 존경심, 거리감, 그리고 경건함의 부재, 비하적이고 파괴적이며 정화적인 웃음 앞에서 공통적인 평등과 같은 현상이 확산된다. (중략) 그리고 성물에 대한 욕설과 모독이 카니발의 지속적인 모티프가 된다.⁴⁵⁾

이쿠노민족문화제는 어떤 면에서 카니발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까. 본고는 카니발이라는 큰 틀에서 마당극을 분석하기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마당극의 의미구조를 서사구조, 인물, 세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서사구조는 열린 구조로 관객들의 참여를 중시하며, 인물은 현실을 리얼하게 그리며 민중계층은 결합이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훼손된 인물을 통하여 소외된 민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는 민중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풍자화되는 현실이다.

구체적 분석대상은 제1회(1983) 이쿠노민족문화제의 마당극이다.⁴⁶⁾ 이 마당극은 마당극회 공동작(共同作)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중심적 인물로 梁民基(1935~)를 들 수 있다. 『生野民族文化祭 1983年度 第1回文集』⁴⁷⁾에서 마당극과 관련하여 「梁先生」가 언급되고 있고, 동일 문집⁴⁸⁾에서는 梁民基가 제일 코리안의 문화를 논하며 마당극을 논하고 있는 글이 재게제⁴⁹⁾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쿠노민족문화제뿐만 아니라, 히가시쿠조마당(東九条マダン)과도 구술면담을 행하였는데⁵⁰⁾, 여기에서 梁民基(1935~)가 이쿠노민족문화제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당극 호랑이 놀이(호랑이소동)>은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3개의 마당으로 구성된다. 첫 째 마당은 한국에서 일명 호랑이 꼬리 낚시라 불리는 전래동화를 소재로, 호랑이를 만난 토끼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신은 강 위에서 물고기를 물고 올 터이니, 호랑이에게 꼬리를 강물에 담그고 있도록 하고 도망치는 데, 호랑이는 꼬리가 물에 얼어 꼼짝 못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둘 째 마당은 한국에서 일명 호랑이 형님이라는 전래동화를 소재로, 호랑이를

44) Бахтин М. М. (1990) Творчество Франсуа Рабле и народная культура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 Ренессанса. М. с.94, 홍상우(2006)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통한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10월> 분석」 『노어노문학』 Vol.18 No.1 한국노어노문학회 p.359 재인용

45) 홍상우 위의 논문 p.359

46) 제1회 마당극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이 대본만이 본연구가 입수한 이쿠노민족문화제의 유일한 마당극 대본이기 때문이다.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pp.26-43(마당극계제)

47)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18

48)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22

49) 원글은 『新日本文学』 83·8月号로 표기되어 있음.

50) 2010년 1월 28일 현재 히가시쿠조마당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渡辺毅와 히가시쿠조마당 사무실에서 면담을 행하였다.

만난 농부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 호랑이를 형님으로 호칭하여 속이고 나아가 자신의 신부감까지 서울에서 납치해오도록 한다. 신부감을 잃은 서울 도령은 신부를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서 농부와 내기장기를 두는데, 호랑이의 도움으로 농부가 내기장기를 이겨 신부를 지켜낸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셋 째 마당은 임진왜란 속에서 광대가 홍의장군으로 변장하여 농부들과 합세하여 왜군들을 몰아내는 이야기이다. 마당극은 <사진1>⁵¹⁾에서 알 수 있듯이 트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사진1>



프롤로그는 이 마당극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본명(本名) 사용」을 이용해 전부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은 이쿠노민족 문화제가 진행되는 곳이니, 통명(通名)인 호길(呼吉)이 아니라, 본명(本名)인 길호(吉呼)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사가 오간다.

남2 너의 본명은, 일본명을 뒤집어 만들었던 말이나?

남1 아냐. 본명을 뒤집어 일본명으로 했단말이야. ⁵²⁾

이것은 코리안이라는 것이 우선이고, 이차적인 것이 일본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평소 전복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 자리(場所)에서 그 전복된 삶을 다시 전복시켜 원위치로 돌림을 말한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남1 마을 전체가 발각 뒤집어진 거 같네.

남2 완전히 우리나라가 통일된 거 같네 그러.

남1 어제 농악대가 이쿠노 거리를 쭉 걸었잖아. 깜짝 놀랐잖아.⁵³⁾

51)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앞의 책 p.28

52)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27 (필자번역, 이하 동일)

동네가 뒤집힌 자리이다. 왜냐하면, 마치 통일된 듯하며, 어제는 농악대까지 이쿠노 거리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제일 코리안은 눈에 안보이는 존재라고 한다. 이러한 제일 코리안이 보란 듯이 오색천으로 몸을 감싸고, 농악에 리듬을 맞춰 거리에 나선 것이다. 일상이 전복된 자리이다. 그러나, 이 자리는 당일 모였다 헤어지는 일시적인 자리로 그 무게감은 일상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렇지만, 이 자리만큼은 무너뜨리고 싶은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복의 자리인 것이다.

첫 째 마당, 「호랑이 꼬리 낚시」는, 서사구조로는 프롤로그와 마찬가지로 열린마당을 여전히 유지하며, 인물은 약자인 토끼가 등장하고, 강자인 호랑이가 웃음거리가 된다. 강자를 조롱할 수 있는 세계이다. 다음은 토끼가 호랑이에게 자신들을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라고 담뱃대를 물리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다.

— 토끼1·2, 얼굴을 서로 마주 보고 킁킁하고 웃으며, 깡충깡충 뛰면서 퇴장한다.⁵⁴⁾

둘 째 마당, 「호랑이 형님」은, 강자인 호랑이, 양반 도령과 약자인 농부와 마부가 등장하며, 호랑이와 양반은 농부와 마부에게 속히거나 신부를 빼앗기거나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마부의 도령에 대한 욕설과 조롱 그리고 저주이다.

마부 쳇, 젊은 자식이. 양반이라고, 거들먹거리기는. 고상한척 해도, 양반이란 게, 연공 앞세우는 거 하고, 사람 욕박지르는 일 밖에 못하면서. 개가죽 관머리에 개다리 소반 개 양반의 명칭이 아들자식이.⁵⁵⁾

마부 제기랄! 이 자식! 양반인지 쪽반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 처를 낚아채가 다니, 말도 안 되는 악당이구만! 너 같은 자식은 무덤을 파서 시체를 엉망으로 패대기 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중략) 자, 배불리 쳐먹어! (라고 말하면서, 엽전이 든 주머니를 도령의 입에 쑤셔넣는다) ⁵⁶⁾

특히, 두 번 째 마부의 대사는 도령의 입에 엽전꾸러미를 강요하는 동작과

53)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26

54)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29

55)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34

56)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34

함께 이루어진다. 입이 하는 역할을 마부는 무시, 전복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 째 마당, 임진왜란의 극복을 분석한다. 등장인물은 강자인 양반, 왜군과 약자인 거지광대, 조선농민이 등장한다. 농민은 왜군을 왜놈으로 욕하고, 양반을 「겁쟁이 서울 양반」으로 조롱하고, 도망가는 사토를 「비겁한 자식」으로 욕한다. 궁지에 몰린 농민을 구하는 것은 거지광대로, 거지광대는 홍의장군으로 분(扮)한다. 농민을 구하는 것은 잘난 양반이 아니라, 평소 폄박받는 거지광대인 것이다.⁵⁷⁾ 상하의 전복이라 할 것이다. 마당극의 카니발적 재미는 무엇보다 강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릇된 잘난 척의 표출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관중이 직접 강자를 비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군의 수장 淸正는 마당극에 모인 많은 재일 코리안 관중을 보고, 1983년 당시 오사카성 축성 4백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군중으로 오해하고, 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⁵⁸⁾ 그리고, 조선시장에서 판다는 호랑이 고환의 효험(강장제, 신경통약, 류마티스약)을 알고, 豊臣秀吉에게 차처럼 달여먹기 위한 선물로 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호랑이 사냥을 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淸正 그런데, 요전에 내가 이 근처 조선시장을 걷고 있었더니, 길바닥에서 아줌마들이 호랑이 불알을 팔고 있더구만. 강장제로는 물론, 신경통, 류마티스에도 듣는다더구만. 우리 히데요시 공도 심한 류마티스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니, 히데요시 공 비위도 맞출 겸, 이 이상의 진상품은 없을 터. 호랑이 불알을 달여 마시고,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3일쯤 자면, 류마티스쯤 낫겠지, 하하하……. 그렇게 하면, 고니시 자식 쯤, 제쳐놓을 수 있겠지……. 어흞. 야. 너희들 내일은 호랑이 사냥가자.⁵⁹⁾

호랑이 고환을 달여먹는다는 대사가 우스우면서도, 이를 위해 조선에서 호랑이 사냥을 하겠다는 데는 분노를 느끼게 마련이다. 세 번 째 마당은 비웃음과 함께 울분을 삭히는 저항극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강자인 왜군을 비웃는 대목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잘난 조종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미국제이거나 포르투갈제인 것이다.⁶⁰⁾ 한편, 저항을 촉구하는 장면은 거지광대의 대사에서 나온다.

광대 …… 우리들은 치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니다.⁶¹⁾

57)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39

58)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40

59)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40

60)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38

61)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40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재일 코리안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광대의 대사에서는 잠자코 있음을 부정하고 저항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존재, 존재감있는 존재와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이것은 농악을 울리며 거리행진을 하던 生野民族文化祭의 근본적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광대는 단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던 양반을 마지막 춤판으로 이끈다. 용서의 장면으로 일치단결을 촉구한다. 사회적 계급의 분열이 아니라, 조화와 나아가 남북의 통일까지 가는 밑거름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카니발은 현실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정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한다. 이 마당극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치단결을 외치며 막을 내리고자 한다.

의병 (광대) 나라를 구하는데 예, 양반이다 상민이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두 일치단결하여 왜놈을 쫓아내버립시다. 자, 북을 울려라.⁶²⁾

제1회 마당극의 분석은 이상과 같으며, 제6회(1988)까지의 마당극의 내용은 다음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마당극의 내용은 주로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을 다루었으나, 88년 6회 축제 때에는 동화(同化)에 대한 입장과 민족주체 확립이라는 입장과 의 갈등을 다루기도 했다. 동포사회의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스스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함께 고민하였다는 것이다.⁶³⁾

나머지 마당극들은 현재 대본 입수의 어려움으로 분석을 뒤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금후의 과제로 하기로 한다.

4. 맺음말

본고는 재일 코리안의 축제가 장소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축제 속의 마당극이 총련과 민단이 갈등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기에 한국에서 실패한 민족극으로의 성립이 이곳 이쿠노쿠에서는 성공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

62)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42

63) 김경숙 앞의 글 p.71

리고, 마당극이 어떤 식으로 카니발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카니발성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쌓여 가는 불평, 불만, 그리고, 공격성을 털어내는 배수구 같은 기능, 즉 심리적 정화의 기능을 가진다 할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성립되는데, 실제로 카니발적 축제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과연 축제를 통하여,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

..., 마당극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몽클몽클하던 것을 날려버리고, (생략)⁶⁴⁾

지금이라도 울고 싶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웬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⁶⁵⁾

풍물이 박력있고, 너무나 엄청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듯하였습니다. ⁶⁶⁾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습니다. 연기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즐거운듯한 얼굴을 보니, 이쪽까지도 즐거워져 왔습니다.⁶⁷⁾

이쿠노민족문화제 실행위원회가 발행하는 1984년 문집과 1998년 보고서에 실린 위의 글들을 보면, 「몽클몽클」,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분출해내고 있다. 안으로 썩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어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통악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동안 홀로 이 차별과 억압을 받던 사람들이 축제라는 자리를 빌어, 함께 무언가를 즐기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쿠노민족문화제가 카니발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고는 재일 코리안의 축제는 재일 코리안만의 축제가 아닌, 일본사회의 다양성, 혼종성, 타자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논하였다.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현재 다민족 사회로 들어서고 있고, 그 중 재일 코리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위인 중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재일 코리안이 축제를 통하여, 일본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소수민족도 「○○타운」 등을 더욱 확장시켜,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에도 큰 영향을

64)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위의 책 p.20

65)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98) 『第15回 (1997) 生野民族文化祭報告書』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 p.5

66)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98) 위의 책 p.12

67)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98) 위의 책 p.12

끼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일 코리안의 축제와 마당극은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골드만, L.(1984a)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p.239
- _____(1984b) 박영신 외 역 『문학사회학 방법론』 현상과 인식 p.61, pp.63-641
- 김경숙(1989) 「재일동포, 축제로 민족을 찾는다」 『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pp.70-71
- 김현선(2007) 「재일 코리안의 축제와 민족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26호
- 문성원(2007) 「주변의 의미와 잠재성」 『시대와 철학』 18-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p.45
- 민윤경(2004) 「마당극의 세계관과 상징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pp.12-13, p.15, pp.20-33
- 바흐진, 미하일(2001) 이덕형 외 옮김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p.50
- 랠프, 에드워드(2008)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p.102-103
- 홍상우(2006) 「바흐진의 카니발 이론을 통한 에이젠슈테인의 영화 《10월》 분석」 『노어노문학』 Vol.18 No.1 한국노어노문학회 p.359
- 飯田剛史(2002) 「第12章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民族」-民族文化運動の自己組織化-」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 世界思想社 p.311, p.321
- _____(2004) 「在日コリアンの「祭り」形成と公共化」 『人文知の新たな総合に向けて-21世紀COEプログラム：グローバル化時代の多元的人文学の拠点形成-第二回 報告書Ⅲ[哲学篇2]』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28, p.35
-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84) 『生野民族文化祭 1983年度 第1回文集』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 p.20, p.22, pp.27-29, p.34, pp.38-40, p.42, p.45, pp.47-49
-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1998) 『第15回 (1997) 生野民族文化祭報告書』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 p.5, p.12
-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編 (2002) 『第20回 生野民族文化祭』 生野民族文化祭実行委員会

- 磯田三津子 (2010) 「ディアスポラ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の音楽と多文化共生-京都・東九条マダンの演目「和太鼓&サムルノリ」にみるハイブリディティ-」 『東洋音楽学会会報』 78 東洋音楽学会
- 李禧淑(2002) 『近現代におけるコリアンの移住と新たな社会空間づくり』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論文 p.26, p.24, p.96, p.321
- 上田智也(1998) 「済州道から「定住コリアン」へ-「コリアタウン」とともに創造する/されるエスニシティ」 『地理』 43-5 p.70
- 江口信清(1994) 井上忠司他編 「民族の祭りと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高揚-朝鮮・韓国人による生野民族文化祭の事例-」 『文化の地平線-人類学からの挑戦-』 世界思想社 p.255, p.258, p.264
- 太田順一(1987) 『女たちの猪飼野』 晶文社
- 片岡千代子(2007) 「在日コリアンの祭りにおける多文化共生空間の創成-京都「東九条マダン」の楽器隊を事例に」 『教育研究推進室年報』 1 名古屋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 金徳煥(1985) 「民族のマダン (広場) -生野民族文化祭-」 『月刊社会教育』 pp.29-32
- 金徳煥(1997) 「大阪生野からのメッセージ」 『グルバン21』 pp.2-23
- 藤井真之助 (2006 (未刊)) 「民族祭り・マダンの系譜-見る者と見られる者の関係性、在日朝鮮人の出会いの場から多民族・多文化共生実現へむけて-」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発表会、大阪、7月
- 吉田正純 (1955) 「多文化共生と「ローカル・ノレッジ」～京都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地域活動を事例に」 『日本の社会教育』 東洋館出版社
- Avila-Tapies, L. (1995) 「在日外国人と日本人の人口移動パターンの比較研究-大阪市生野区を事例として-」 『人文地理』 47-2
-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Бахтин М. М. (1990) Творчество Франсуа Рабле и народная культура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 Ренессанса. М. с.94

要 旨

本稿は現在多文化、多民族社会に入った日本社会の中で最も大きな外国人集団である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マダン劇を分析対象にする。先行研究としては在日コリアンの祭りについて2000年以後から日本国内では少しずつ行われている状況である。しかし、韓国国内で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状況である。更に在日コリアンの祭りの中で行われるマダン劇についての先行研究は全然見当たらず、研究がまだ始まっていないといってもかまわないほどの状態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本稿は在日コリアンの最初の祭りである生野民族文化祭を分析対象にする。

分析で用いる概念は場所性、ローカリティー、他者そして、カーニバルである。場所性に基づいて、どうして大阪市生野区で最初の在日コリアンの祭り（生野民族文化祭）が形成されたのかを論じ、また、それをローカリティー、他者と関連づけて、その空間の境界地としての新しい文化の発散の可能性を認めた。そして、マダン劇についてはバフチンのカーニバル理論を用い分析を行った。その結果、マダン劇はカーニバルの上下の転覆性が十分認めることができた。更にマダン劇は在日コリアンだけではなく、日本人にも多文化に接する機会を与えていた。以上のような点から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マダン劇は意義深い文化要素の一つであることが十分認められると考える。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生野民族文化祭、祭り、マダン劇、民族劇、
ローカリティー、場所性、カーニバル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0. 3. 13
2차 심사 : 2010. 3. 27